

# 김승수 전주시장, 시정비전 공유

### 시, 시청강당서 직원 대상 청원공감하마당 열어 환경문제 함께 고민·오창환 대표 특강도 마련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청 직원들과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선 7기 시정비전을 시청직원들과 공유하고 전주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중 청원 공감하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 7기 시정비전을 공유하고 환경 위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키로하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김승수 시장은 지난 2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시정의 강한 의지가 담긴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계획서에 결재하는 것으로 민선 7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청원공감하마당 행사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 7기 비전 공유의 시간과 오창환 전북환경운동연합 공

동대표의 환경문제에 대한 강연으로 이뤄졌다.

먼저, 강단에 오른 김 시장은 민선 7기 시청 5대 목표인 '새로운 성장

으로 가는 미래 경제 △삶이 되고 밥이 되는 찬란한 문화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 △멀리 보고 함께 가는 따뜻한 전주 공동체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에 대해 청원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창환 전북환경운동연합 공

동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전주'를 주제로 △지구와 인간간의 관계 △온난화, 자원위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 원인 및 대책 △지속가능한 발전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지난 2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중 청원 공감하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 ‘전주시 여름 축제 안전하게 즐겨요’

###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폭염 대책·불안전 요소 사전 차단 주문

전주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름 축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시는 지난 28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중 열리는 전주얼티밋뮤지컬페스티벌과 전주가땀축제, 전라북도 과학축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시 관련부서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여 위원들은 △폭염대책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종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운영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구조·구급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대처계획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시는 이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축제 주최기관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축제 전까지 경찰서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행사장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폭염기간에 축제가 열리는 만큼 폭염

대책 및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안정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행안부 권고 1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와 개최장소가 산·수면인 경우, 사용하는 재료가 불·폭죽·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송효철 기자

## ‘진열장 부수고 싸쓸이’ 정읍 금은방 털이범 검거

심야시간 금은방에 들어가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22)씨 등 3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20분경 정읍시 수성동 한 금은방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부수 뒤 금반지와 목걸이 등을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32)씨 등 2명은 범행 장소까지

함께 이동하고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경 정읍시에 한 길거리 등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뉴스

## 금암1동,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집중발굴

금암1동(동장 조현숙)은 지난 27일 통장단으로 구성된 희망알리미 발굴단과 힘을 합쳐 다음달까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55세 이상 60세 미만 1인 가구 총 195세대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폭염, 집중호우 등 위기사항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집중 발굴하고 지원 노력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금암1동은 작년 9월, 60세 이상 65세 이하 1인 독거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15세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한바 있다.

금암1동 조현숙 동장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계층을 적극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덕진공원에서 전국 백일장대회 본선 열려

### 전북시인협회, 수상작 스토리텔링 작품집 발간 예정 참가자 대상 덕진공원·한옥마을 등 게릴라 투어

전북도 대표관광지인 전주 덕진공원이 전국 초·중학생들이 찾는 생태문화명소로 거듭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연꽃군락지 등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한 전주 덕진공원에서 지난 28일 전국 규모의 초·중학생 백일장대회 본선이 개최됐다. 대회가 열린 전주 덕진공원은 신석정과 김해강, 이철균, 백양춘 등 유명 문인들의 시비가 세워져 있어 중요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생태적 자원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전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전국 초·중학생 백일장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된 대회로, 백일장대회에 참여한 학생과 가족들은 7월 한여름, 덕진공원 호수에 만개한 연꽃의 정취를 느끼며 백일장대회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덕진공원 전국 초·중학교 백일장대회 예선에는 전북을 비롯해 서울과 광주, 경기도 등 전국에서 지난 1회 대회보다 약 175명 늘어난 약 400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이 중 1차 심사를 거친 74명이 운문과 산문분야로 나누어 이날 덕진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본선 경연을 펼쳤다.

또한 이번 백일장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전주를 찾은 학생과 가족 120여명을 대상으로 덕진공원과 한옥마을 등 전주 주요 관광명소를 연계한 게릴라 투어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시는 향후 덕진공원의 문화적 매력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이번 백일장대회 우수작을 수록한 작품집을 제작·발간해 참가자와 전국 학교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덕진공원의 생태자원과 예술, 문학이 만나는 공간에서 수준 높은 백일장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덕진공원을 비롯해 서울과 광주, 경기도 등 전국에서 지난 1회 대회보다 약 175명 늘어난 약 400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이 중 1차 심사를 거친 74명이 운문과 산문분야로 나누어 이날 덕진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본선 경연을 펼쳤다. 또한 이번 백일장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전주를 찾은 학생과 가족 120여명을 대상으로 덕진공원과 한옥마을 등 전주 주요 관광명소를 연계한 게릴라 투어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시는 향후 덕진공원의 문화적 매력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이번 백일장대회 우수작을 수록한 작품집을 제작·발간해 참가자와 전국 학교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덕진공원의 생태자원과 예술, 문학이 만나는 공간에서 수준 높은 백일장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덕진공원을 비롯해 서울과 광주, 경기도 등 전국에서 지난 1회 대회보다 약 175명 늘어난 약 400명의 학생들이

## 취업고민에 지친 전주 청년의 심리안정 도와

### 전주시, 국립장성숲체원서 '청년심포, 프로젝트'

### 지친 청년들의심신 치유와소통·공감시간마련

청년희망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취업고민 등으로 지친 청년들의 심리치유와 안정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27일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청년심포, 프로젝트' 제2기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열었다. '청년심포, 프로젝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노동시장 침체로 힘겨워 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심리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으로, 현재 제2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지난 5월 참여자 모집 후 개인 심리검사와 집단상담을 마친 제2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 고민 등으로 지친 심신 치유와 마음의 안정, 자존감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참여한 청년들은 숲 오감 체험, 천연벌레 퇴치기 만들기 체험, 심리상담사와 함께하는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과 유익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힐링캠프에 참석한 한 청년대표 참여자는 "지난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으로써 현재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오늘 캠프도 자연 속에서 걷고 느끼고 마음의 휴식을 취하면서 참여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이해해주고 지지를 보내주는 청년심포 프로젝트에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심포 프로젝트는 장기 실업 및 구직실패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주체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심리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